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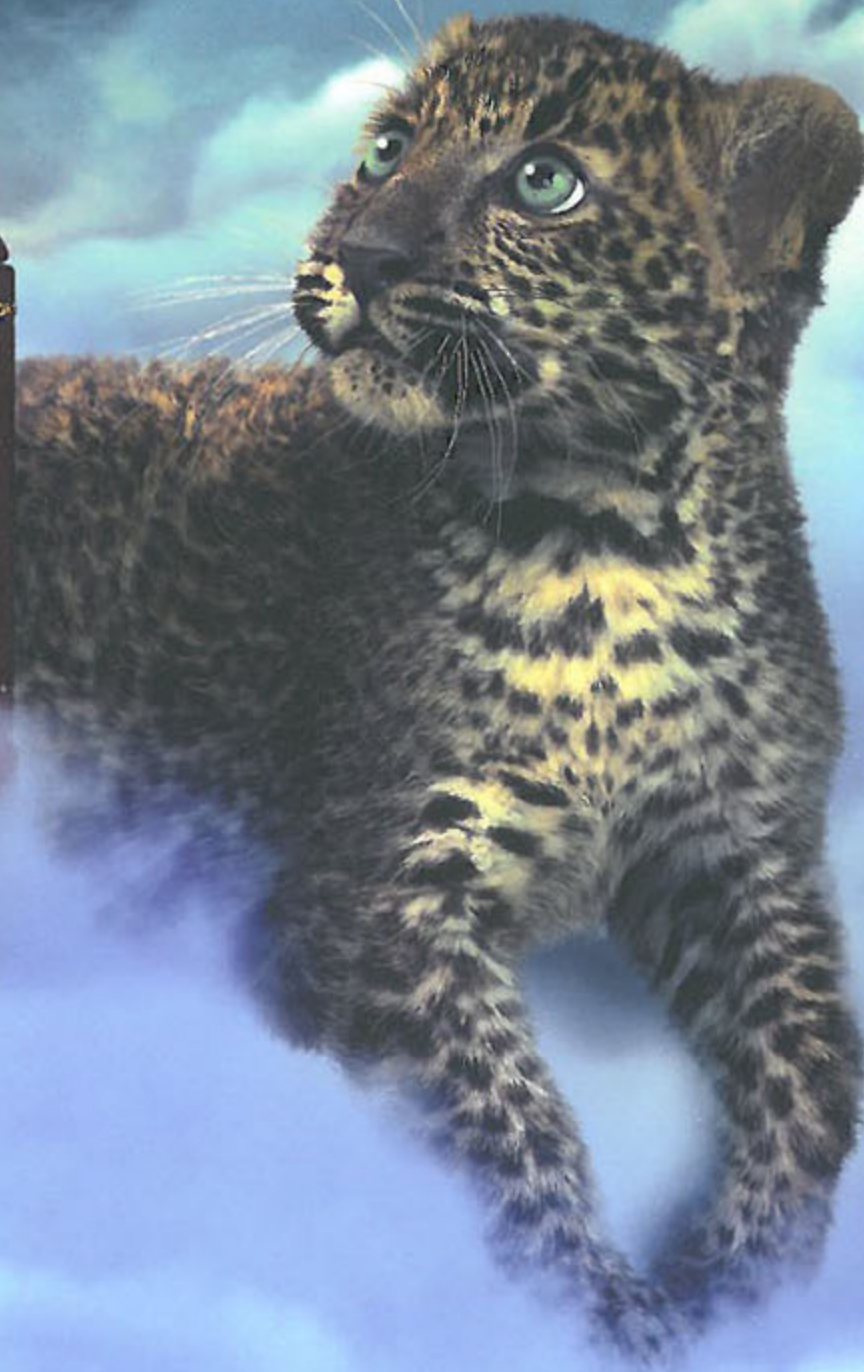
HONG KONG
C H I N A
I N D I A
K O R E A

NOBLESSE

12

ABC CERTIFIED
KOREA ALLOY BUREAU OF
CIRCULATIONS

국내 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멤버십 잡지



Cartier

이것은 미니멀리즘이 아니다

그는 오브제를 만드는 장인이었다. 지독히 절제된 오브제들은 얼핏 평범한 상자처럼 보였고 몇몇 평론가에 의해 미니멀 아트라 불리기도 했지만, 그는 이전의 모든 예술적 양상을 거부했다. '무엇을 조각한 건가?'라는 질문조차 뒤로한 채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길 원했다. 회화와 조각 사이 그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세계로 확장된 예술. 지난 1994년 타계한 20세기의 대표적 아티스트 도널드 저드의 이야기다. 국제갤러리에서 11월 30일까지 그의 작품 활동 시기 중 백미로 꼽히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의 입체 작품 13점을 소개한다. 다만 "아버지는 미니멀리즘 작가가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조화를 중시한 맥시멀리스트(maximalist)였다"라고 회고한 저드의 아들이자 도널드 저드 재단 이사장 플래빈 저드의 말처럼, 작품 한두 점 자체의 의미보다는 건축, 가구 등 그가 추구한 예술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거장의 예술 세계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문의 735-8449



Untitled, galvanized steel, 100 x 100 x 100cm(each), 1988
 Photographer Jeremy Haik, Art © Judd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